

<자기 꾀에 넘어진 악인의 최후> - 예 7:1-10

대지 : 1. 에스더의 간청 2.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한 줄 요약 :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1. 에스더의 간청

에스더는 아하수어로 왕과 하만을 위한 특별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두 차례나 대답을 미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자신에게 주고,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함께 진멸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로부터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모두 몰살당하면 아하수어로 왕에게도 큰 손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하수어로 왕은 하만의 청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에스더와 에스더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형벌을 처할 백성이 어느 민족인지 하만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3:8). 설령 하만이 그 점을 밝혔더라도, 왕은 자기 왕후가 그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에스더의 말에 충격을 받은 아하수어로 왕은 자신도 모르게 에스더의 생명을 위협한 자가 누군지 밝히려 합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신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도 격노했을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자신을 위협했던 자가 하만이라고 밝힙니다.

에스더의 이 발언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 하만은 깜짝 놀라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 앞에 엎드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자신이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울무에 자기가 걸린 꼴이 된 거죠.

2.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의와 심판을 피해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기쁨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 요 1:1-14

대지 :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2. 자녀 삼으시려고

한 줄 요약 :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

1.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와 요한복음뿐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하여, 온 우주가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시작과 끝이시며 창조에서부터 재창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에 생명을 부여하셨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의 증인으로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요한이 빛을 증언하지만, 요한 자체가 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빛으로 오신 말씀에 대한 증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자꾸만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절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것도 없다 느낄 때> - 요 6:9-14

대지 : 1. 오병이어 2.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한 줄 요약 : 아무 것도 없다 느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1. 오병이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라 불리는 시간으로써,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물려든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빌립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험하고자 일부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모여든 무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최소한 200 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도 성인 남성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만한 큰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리떡과 말린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식사였으

며, 이 정도 양이면 아이가 혼자 배불리 먹거나 다른 친구 하나와 나눠 먹을 만큼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지만, 이 수많은 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앉으라고 명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열두 광주리나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주십니다. **세상의 관점,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도 나의 틀에 박힌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너와 함께> - 요 16:25-33

대지 : 1. 사랑 2. 승리

한 줄 요약 :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자.

1. 사랑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현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씀하**

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사 예수님께 들은 대로 알려주신 때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오신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스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특권을 지니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9절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시니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다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제자들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가롯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 이후에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날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도망가지 말라고 경고하실 것이고, 도망갔을 때 역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환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 역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 역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1. HOW 주석(에스더, 요한복음)
2. 엑스포지멘터리(룻기 에스더, 요한복음1, 요한복음2)
3. 매일성경전집(역사서, 복음서)
4. 틴데일 구약주석 에스더
5.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에스더
6. BECNT 요한복음
7. PNTC 요한복음
8. NIV 적용주석 요한복음